

# 우리 농·특산물 싸고 건강하게 천안 '로컬푸드' 인기



1 2020년 천안 배 수출 기념식 2 거봉 포도 3 천안 명물 호두과자 4 천안 배를 맛보는 외국인

많은 국민들은 천안 하면 천안삼거리, 호두과자, 천안 배, 거봉 포도 등을 떠올린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지역명에 어울리게 천안은 예로부터 삼남의 교통 요충지로 살기 좋다는 평을 들었다. 자연재해도 적어 농·특산물이 풍요롭다. 또 인심이 좋고 애국지사가 많이 배출된 충절의 고장이기도 하다.

천안의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천안 배, 거봉 포도, 오이, 멜론, 호두, 버섯, 홍타령 쌀 등을 꼽는다. 천안시는 이런 농·특산물에 공동 브랜드인 하늘그린과 홍타령 쌀 상표를 붙여 전국적으로 판매 중이다. 천안 배와 거봉 포도는 각국으로 수출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천안의 대표 농·특산물인 하늘그린 천안 배는 1909년부터 성환읍 왕림리 지역에서 재배를 시작해 110여 년에 이르는 긴 역사를 자랑한다.

주 재배지 성환을 중심으로 직산, 성거, 입장 지역의 농가 801곳을 통해 947ha 면적에서 재배한다. 연간 540억 원 소득을 올리고 있어 전국 3대 배 주산단지로 꼽힌다.

아울러 전국에서 수출 1위를 차지하는 천안배는 2019년 미국 등 20여 개국에 수출해 6천429t에 약 1천775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대표적인 효자 품목이다.

천안 거봉 포도는 595곳의 농가가 471ha 면적에서 경작한다. 생산 수입은 180억 원에 이른다. 입장, 성거, 직산 지역의 광활한 구릉지대에서 비가림 재배, 봉지 씌우기 등 환경친화적 농법으로 재배해 포도알이 크고 당도가 높다. 각종 영양분이 풍부한 고품격 과일로 포도의 여왕으로 불린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소화 촉진과 피로회복에 좋으며 미네랄이 풍부하다. 비타민, 칼슘, 칼륨, 철분 등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로부터 건강, 웰빙 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과일 특성상 수출하기가 까다롭지만, 천안시와 천안포도영농법인이 협력해 수출 길을 열었다. 2016년 중국에 첫 수출을 시작해 2019년에는 109t에 91만천 달러를 수출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농업인 소득 증대, 그리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과 홍타령 쌀 판촉을 위해 각종 행사를 열거나 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